

I.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24. 11. 22.(금) 07:00 ~ 2024. 11. 24.(일) 22:00
- 상담건수¹⁾: 1,481건

II. 주요의견 내용

○ 방송 호평(6명)

-프로그램명 : 「사랑의 가족」 ‘사과 농장 부부의 경영권 분쟁’

-방송일시 : 2024. 11. 23.(토) 1TV (11:10-12:00)

평소 즐겨 시청하는 방송이다. 이날 사과 농장을 운영하는 부부의 사연이 소개됐는데 너무 안타까웠다. 본인은 일 년 내내 사과를 먹는 사람이다. 어차피 사과를 구매해야 하는데, 이날 출연한 부부에게 구매해서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방송을 제작한 KBS에게 감사하다.

○ 극본 제언(8명)

-프로그램명 : 일일드라마 「스캔들」

-방송일시 : 2024. 11. 22.(금) 2TV (19:50-20:30)

살인, 폭력 등 소재가 너무 사악하다. 마치 범죄의 교과서같이 느껴진다. KBS가 국민의 방송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런 나쁜 드라마를 방영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이 보기에다 지나치다. 우리나라 대표 방송국다운 내용으로 드라마를 제작해 주기 바란다.

III. 청원현황

- 신규청원
 - 7건.
-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
 - 이슈 청원 : ‘다큐 인사이드’ 외 1건.

※ 참고: KBS홈페이지->시청자권익센터->시청자청원(<http://petitions.kbs.co.kr>)

1) 프로그램 별 인터넷 의견 건수는 집계에서 제외

IV. 일일 상담내용

1. 상담실적 : 총 1,481건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 ²⁾	계
730	77	-	-	674	1,481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
715	487	12	-	-	267	1,481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278	1,203	-	1,481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1,146	12	149	174	1,481

시청자 의견	문 의
<p>【편 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승자」 - 후속 방송 요청 <p>【보 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뉴스 9」 - 진행자 호평 <p>【시사·교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의 밥상」 - 진행자 제언 ○ 「사랑의 가족」 - 방송 호평 <p>【연예·오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상출시 편스토랑」 - 출연자 섭외 제언 <p>【드라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드라마 「스캔들」 - 극본 제언 <p>【라디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상의 모든 정보」 - 방송 호평 ○ 「주현미의 러브레터」 - 방송 호평 	<p>【방 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시 내고향」 - ‘과메기’ 연락처 문의 73건 ○ 「2TV 생생정보」 - ‘해물 백반’ 연락처 문의 37건 ○ 「사랑의 가족」 - ‘사과 농장’ 연락처 문의 33건 ○ 「전국노래자랑」 - ‘방송 정보’ 문의 29건 ○ 「동네 한 바퀴」 - ‘꽃감’ 연락처 문의 27건 <p>【기 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시청」 문의 8건 ○ 「수신기술」 문의 2건 외 2건 <p>【경 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신료」 문의 63건 ○ 「홈페이지」 문의 49건 ○ 「프로그램 구입」 문의 20건 ○ 「전화교환」 문의 9건 ○ 「주차」 문의 4건 외 4건 <p>【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전 문의사항 포함 174건

2)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문의, 프로그램 구매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2. 프로그램별 의견

의견	세부내용
[편 성]	
후속 방송 요청	<p>○ 「개승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 11. 13.~2022. 3. 12. (토) 2TV 방송. (총 16부작) - 서바이벌 형식의 개그 프로그램이 다시 제작되었으면 한다. 신인 위주로 섭외해서 우승자는 「개그 콘서트」에 출연할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보 도]	
진행자 호평	<p>○ 「KBS 뉴스 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11. 22.(금) 1TV (21:00-22:00) - 최문종 앵커가 진행을 맡은 후로 기분 좋게 시청하고 있다. 다른 앵커들과 달리 웃는 표정으로 진행을 해주어 보기 좋다. 특히 클로징 멘트를 참 기분 좋게 잘 하는 것 같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시사 · 교양]	
진행자 제언	<p>○ 「한국인의 밥상」 (5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11. 21.(목) 1TV (19:40-20:30) - 진행자 최불암 씨가 말씀을 구수하게 하고, 지역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음식을 맛보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휴가 중이라는 소식은 들었지만, 너무 오래 자리를 비우니 궁금하다. 최불암 씨가 빠르게 복귀했으면 좋겠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의견	세부내용
방송 호평	<p>○ 「사랑의 가족」 ‘사과 농장 부부의 경영권 분쟁’(6명)</p> <p>- 2024. 11. 23.(토) 1TV (11:10-12:00)</p> <p>- 평소 즐겨 시청하는 방송이다. 이날 사과 농장을 운영하는 부부의 사연이 소개됐는데 너무 안타까웠다. 본인은 일 년 내내 사과를 먹는 사람이다. 어차피 사과를 구매해야 하는데, 이날 출연한 부부에게 구매해서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방송을 제작한 KBS에게 감사하다.</p>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연예 · 오락]	
출연자 섭외 제언	<p>○ 「신상출시 편스토랑」 (3명)</p> <p>- 2024. 11. 22.(금) 2TV (20:30-22:00)</p> <p>- 해당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하는 시청자이다. 그런데 이날 표창원 씨가 출연한 것을 보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 표창원 씨는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화를 전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취지가 좋은 프로그램인데, 누드화로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의 출연이 불편하다.</p>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드라마]	
극본 제언	<p>○ 일일드라마 「스캔들」 (8명)</p> <p>- 2024. 11. 22.(금) 2TV (19:50-20:30)</p> <p>- 살인, 폭력 등 소재가 너무 사악하다. 마치 범죄의 교과서같이 느껴진다. KBS가 국민의 방송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런 나쁜 드라마를 방영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이 보기에 지나치다. 우리나라 대표 방송국다운 내용으로 드라마를 제작해 주기 바란다.</p>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의견	세부내용
[라디오]	
방송 호평	<p>○ 「세상의 모든 정보」 ‘2부’(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11. 22.(금) 1R (12:20-13:58) - KBS 라디오를 하루 종일 청취하는 애청자이다. 이날 2부 ‘하프타임 뉴스’ 코너에서 희귀병을 앓는 4살 딸을 위해 국토대장정에 나선 아빠의 사연이 소개됐는데 너무 감동적이었다. 후원을 하고 싶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방송 호평	<p>○ 「주현미의 러브레터」 (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11. 22.(금) 2R (09:00-11:00) - 늘 듣고 있다. 감사하게도 이날 방송에 본인의 사연이 소개됐다. 덕분에 선물도 받게 됐다. 내용이 너무 좋고, 진행자의 진행도 재미있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